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의 구강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비교 연구

박일순 · 이경희¹ · 윤혜정^{1*}

동우대학 치위생과, ¹신흥대학 치위생과

A Comparative Study on the Behavior Status of Oral Health between Dental Hygiene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Il-Soon Park, Kyeong-Hee Lee¹ and Hye-Jeong Youn^{1*}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u college, Sokcho City, Kangwon-Do 217-711, Korea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heung college, Uijeongbu-City 480-701,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behavior status of oral health between dental hygiene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students from two different colleges that were respectively located in Seoul and Gwangju. In order to examine the necessity of oral-health education, the self-recorded questionnaires had been widely distributed and surveyed from June 2006 to May 2007.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on the basis of comparative analysis through the collected materials. 1.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actual condition of managing oral health, regarding the frequency of tooth brush, the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the largest in 3 times. And, the non-dental hygiene students were indicated to be the largest in two times($p < 0.01$). 2. As for the experience of scaling, the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the most in having experience(50.9%), and the non-dental hygiene students were the most in having no experience(56.8%)($p < 0.001$). 3. As a result of examining about the experience of oral-health educatio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many in a case of having experience. And, the non-dental hygiene students were many in a case of having no experience($p < 0.001$).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ed that in terms of the state of oral health care, the dental hygiene students who received a lot of oral health education excelled the other students who didn't.

Key words Behavior status of oral health, Oral health, Oral health education

서 론

구강건강이란 상병에 이환되지 않고 허약하지 않으며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치아와 악안면 구강조직기관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¹⁾.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전한 상태란 사회적 건강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²⁾.

구강건강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인 대학생들의 경우 이들의 건강이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이 사회주변인과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하다

고 할 수 있다³⁾.

2006년도 구강보건실태조사⁴⁾에서 대학생 연령층에 해당하는 18-24세의 치아우식 경험율은 83%를 나타냈으며, 치주병 유병율은 58.3%를 나타냈다고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된 국외의 연구에서 Kashi⁵⁾는 구강건강상의 문제가 증가할수록 학생의 학업수행정도가 떨어졌다고 밝힌 바 있으며, Solberg 등⁶⁾은 캘리포니아 대학생들이 악관절 장애와 관련된 통증과 두통 때문에 수면과 노동활동의 장애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의 연구에서 이 등⁷⁾은 대학생의 연간 구강진료기관 이용율이 45.6%임을 밝혔고, 구강진료기관이용은 학업수행지장정도가 높을수록, 성별이 여성일 경우,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조⁸⁾는 스켈링 실습실에 내방한 20대 대학생의 치면세균막과 구강보건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치태지수가 높았고, 정기적으로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4%에 불과했으며, 칫솔질 교육을 받은 사람이 치면세균막지수가 낮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시기에 구강건강관리를 한다는 것은 성

*Corresponding author
Tel: 032-203-7776
Fax: 031-870-3489
E-mail: nara78@hanmail.net

인기에 더 증가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고 다양한 구강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구강건강관리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해당되는 연령대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강보건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현재까지 이 시기 연령대의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기초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바, 이에 합당한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구강건강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이 시기의 적절한 구강관리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실제적인 구강보건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비교적 많은 치위생 전공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 학생의 구강건강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성인 구강보건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서울과 광주 지역의 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은 조⁸⁾의 구강관리실태 설문 문항과 주⁹⁾의 구강보건교육 유효도에 관한 문항을 기초로 사전조사를 통하여 설문을 수정 및 보완한 다음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설문기간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약 1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나누어준 다음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한 후 수거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500부였으며, 이중 불충분한 응답을 한 74부를 제외하고 426부를 최종 대상으로 하여 분석 하였다.

2. 분석방법

통계적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을 이용하여

시행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여 빈도(%)로 나타냈다. 구강건강 유지방법, 구강건강 관리실태,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 스켈링 경험 및 인식, 본인의 충치경험, 치과방문경험 및 치료경험, 정기구강검사 여부,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 구강보건교육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 실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구강건강 유지 방법, 구강건강 관리실태의 칫솔질 횟수, 스켈링에 대한 인식, 본인의 치아우식증 경험, 구강보건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기대빈도가 5이하로 Fisher's 정확한 검정을 사용하였고, 구강건강관리 실태의 칫솔질 시간, 칫솔질 방법,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 스켈링 경험, 치과방문 경험, 치과치료경험, 정기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경험은 기대빈도가 5 이상으로 χ^2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치위생 전공자에서 남자 3.2%, 여자 96.8%이었으며, 일반 학생에서 남자 48.5%, 여자 51.5%를 차지하였다. 성별과 학과(치위생 전공자와 일반학생)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p < 0.001$). 학년에서 치위생 전공자는 1학년 70.9%, 2학년 29.1%이었으며, 일반 학생에서 1학년 77.2%, 2학년 22.8%를 나타냈다. 학년과 학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연령에서 치위생 전공자는 20-21세가 60.5%로 가장 많았으며, 20세 미만 24.5%, 26세 이상 5.9%, 22-23세와 24-25세 각각 4.5%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생은 20-21세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22-23세와 26세 이상이 각각 17.0%, 20세 미만 16.5%, 24-25세 10.7%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p
Gender	Male	7(3.2)	100(48.5)	0.000***
	Female	213(96.8)	106(51.5)	
Grade	1 grade	156(70.9)	159(77.2)	0.140
	2 grade	64(29.1)	47(22.8)	
	Below 20 years	54(24.5)	34(16.5)	
Age	20-21years	133(60.5)	80(38.8)	0.000***
	22-23years	10(4.5)	35(17.0)	
	24-25years	10(4.5)	22(10.7)	
	Over 26 years	13(5.9)	35(17.0)	
Area	Urban area	132(60.0)	116(56.3)	0.478
	Medium-small area	68(30.9)	64(31.1)	
	Rural area	20(9.1)	26(12.6)	
Total		220(100)	206(100)	

***p < 0.00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학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p < 0.001$). 지역에서 치위생 전공자는 대도시 60.0%, 중소도시 30.9%, 소도시 9.1%로 나타났으며, 일반 학생은 대도시 56.3%, 중소도시 31.1%, 소도시 12.6%로 나타났다. 지역과 학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Table 1).

2. 구강건강 유지방법

구강건강 유지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이 치위생 전공자들의 경우에는 올바른 칫솔질이 90.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올바른 칫솔질이 75.7%, 좋은 치약과 칫솔사용이 9.7%로 나타났으며,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 간에 구강건강유지방법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3. 구강건강관리 실태

구강건강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칫솔질 횟수에서는 치위생 전공자들은 Table 3과 같이 3회가 4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회가 46.8%로 나타났으며, 일반 학생들은 2회가 5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회가 38.8%

Table 2. Method of oral health maintenance in two group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Right tooth brushing	198(90.0)	156(75.7)	354(83.1)	
Sugar intakes limit	7(3.2)	14(6.8)	21(4.9)	
Balance of diet	2(0.9)	8(3.9)	10(2.3)	
Good toothpaste and brush use	5(2.3)	20(9.7)	25(5.9)	0.001**
Fluoride application	2(0.9)	0(0.0)	2(0.5)	
Sealant	3(1.4)	4(1.9)	7(1.6)	
Etc	3(1.4)	4(1.9)	7(1.6)	
Total	220(100.0)	206(100.0)	426(100.0)	

** $p < 0.01$

Table 3. Status of oral health behavior in two group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Tooth brushing frequency	1 times	4(1.8)	13(6.3)	0.009**
	2 times	103(46.8)	111(53.9)	
	3 times	105(47.7)	80(38.8)	
	More than 3 times	8(3.6)	2(1.0)	
Tooth brushing time	Within 1minute	10(4.5)	14(6.8)	0.027*
	Within 2minutes	114(51.8)	128(62.1)	
	Within 3minutes	69(31.4)	52(25.2)	
	More than 3minutes	27(12.3)	12(5.8)	
Tooth brushing method	Vertical method	52(23.6)	72(35.0)	0.000***
	Scrub method	22(10.0)	36(17.5)	
	Rolling method	129(58.6)	75(36.4)	
	Etc	17(7.7)	23(11.2)	
Total	220(100.0)	206(100.0)	426(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4. Use of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in two group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Yes	63(28.6)	30(14.6)	93(21.8)	0.000***
No	157(71.4)	176(85.4)	333(78.2)	
Total	220(100.0)	206(100.0)	426(100.0)	

*** $p < 0.001$

로 나타났으며,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 간에 칫솔질 횟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칫솔질 시간에서는 치위생 전공자들은 1-2분이 5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분 31.4%, 4분 이상 1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학생들은 1-2분이 6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분이 25.2%, 1분 미만이 6.8% 순으로 나타났으며,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 간에 칫솔질시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칫솔질 방법에서는 치위생 전공자들은 회전법이 5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마법 23.6%, 횡마법 10.0%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 학생들은 회전법이 3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마법 35.0%, 횡마법 17.5% 순으로 나타났으며,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 간에 칫솔질 방법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4.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

1개 이상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치위생 전공자들은 Table 4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28.6%로 나타났고, 일반 학생들은 14.6%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5. 스켈링에 대한 인식

스켈링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5와 같이 치위생 전공자들은 경우에 따라 해야 한다고 응답한

Table 5. Recognition of scaling in two group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Must	70(31.8)	28(13.6)	98(23.0)	
In some case	149(67.7)	171(83.0)	320(75.1)	0.000***
Needless	1(0.5)	7(3.4)	8(1.9)	
Total	220(100.0)	206(100.0)	426(100.0)	

***p < 0.001

경우가 6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1.8%로 나타났다. 일반 학생들은 경우에 따라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8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3.6%로 나타났으며,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6. 스켈링 경험

스켈링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6과 같이 치위생 전공자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5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없는 경우가 35.5%로 나타났다. 일반 학생들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5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있는 경우가 33.5%로 나타났으며,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7. 본인의 치아우식증 경험

본인의 충치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7과 같이 치위생 전공자들은 과거에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7%로 나타났으며, 일반 학생들은 과거에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재

Table 6. The comparison for Experience of scaling in two group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Yes	112(50.9)	69(33.5)	181(42.5)	
No	78(35.5)	117(56.8)	195(45.8)	0.000***
Future	30(13.6)	20(9.7)	50(11.7)	
Total	220(100.0)	206(100.0)	426(100.0)	

***p < 0.001

Table 7. Caries experience of the subject in two group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Past	122(55.5)	114(55.3)	236(55.4)	
Now in progress	83(37.7)	64(31.1)	147(34.5)	0.021*
Not	9(4.1)	24(11.7)	33(7.7)	
Don't know	6(2.7)	4(1.9)	10(2.3)	
Total	220(100.0)	206(100.0)	426(100.0)	

*p < 0.05

Table 8. Experience of dental office visit in two group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Yes	215(97.7)	186(90.3)	401(94.1)	
No	5(2.3)	20(9.7)	25(5.9)	0.001**
Total	220(100.0)	206(100.0)	426(100.0)	

**p < 0.01

Table 9. Experience of dental treatment in two group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Within 3 times	40(18.2)	48(23.3)	88(20.7)	
3-6 times	56(25.5)	63(30.6)	119(27.9)	
7-10 times	36(16.4)	40(19.4)	76(17.8)	0.074
11-15 times	52(23.6)	33(16.0)	85(20.0)	
More than 15	36(16.4)	22(10.7)	58(13.6)	
Total	220(100.0)	206(100.0)	426(100.0)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1.1%로 나타났으며,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 간에 치아우식증 경험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8. 치과방문경험

치과를 한번이라도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8과 같이 치위생 전공자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97.7%로 가장 많았고, 일반 학생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90.3%로 가장 많았으며,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 간에 치과방문 경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9. 치과치료경험

치과치료를 한번이라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9와 같이 치위생 전공자들은 3-6회가 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1-15회 23.6%, 3회 이내 18.2%, 7-10회 및 이주 많음이 16.4%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생들은 3-6회가 3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회 이내 23.3%, 7-10회 19.4%, 11-15회 16.0% 순으로 나타났으나,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 간에 치과치료경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10. 정기구강검사

정기구강검사만을 목적으로 한번이라도 치과에 내원한 경험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10과 같이 치위생 전공자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0%로 나타났고, 일반 학생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1.2%로 나타났으며,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 간에 정기구강검사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11. 구강보건교육경험

구강보건 교육을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받은 경험이

Table 10. Periodical oral exam in two group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Yes	33(15.0)	23(11.2)	56(13.1)	0.242
No	187(85.0)	183(88.8)	370(86.9)	
Total	220(100.0)	206(100.0)	426(100.0)	

Table 11.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in two group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Yes	126(57.3)	75(36.4)	201(47.2)	0.000***
No	94(42.7)	131(63.6)	225(52.8)	
Total	220(100.0)	206(100.0)	426(100.0)	

***p < 0.001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11과 같이 치위생 전공자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57.3%로 나타났고, 일반 학생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36.4%로 나타났으며,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 간에 구강보건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12. 구강보건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구강보건교육 유경험자 중 구강보건 교육이 본인의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본 결과, Table 12와 같이 치위생 전공자들은 보통이다가 48.4%로 가장 많았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가 46.0%로 나타났으며, 일반 학생들은 보통이다가 54.7%로 가장 많았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가 25.3%로 나타났으며,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 간에 구강보건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고 찰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역군인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상태를 조사하는 것은 대학생 개개인의 건강도를 측정함은 물론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과 학과 사이, 연령과 학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며(p < 0.001), 학년과 학과 사이, 지역과 학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는 성별과 연령에서 치위생과 특성상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연령부분에서도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20-21세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들의 구강건강 유지방법에서, 치위생 전공자들의 경우에는 올바른 칫솔질이 90.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올바른 칫솔질이 75.7%로 나타

Table 12. Recognition of effect by oral health education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Be much help	58(46.0)	19(25.3)	77(38.3)	0.001**
Average	61(48.4)	41(54.7)	102(50.7)	
Be not much help	4(3.2)	11(14.7)	15(7.5)	
Be not much help	4(3.2)	4(5.3)	7(3.5)	
Don't know	3(2.4)	4(5.3)	7(3.5)	
Total	126(100.0)	75(100.0)	201(100.0)	

**p < 0.01

났으며 두 집단 간에 구강건강 유지방법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01). 구강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특히 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인 치면세균막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⁸⁾. 김¹⁰⁾은 치면세균막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올바른 칫솔질이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 간에는 숫자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칫솔질의 중요성은 상당히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학생이 치위생 전공자들에 비하여 칫솔질의 중요성을 덜 인식 하고 있으므로 일반 학생들에게는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칫솔질의 목적과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알맞은 칫솔질 방법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칫솔질 횟수에 대한 결과에서, 치위생 전공자들은 3회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학생들은 2회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 칫솔질 횟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1). 조⁸⁾의 연구에서 1일 칫솔질 횟수에 따른 평균 치면세균막 지수를 보았을 때, 1회 칫솔질 시행 시 치태지수는 1.6, 1일 2회 시행 시 1.4, 1일 3회 시행 시 1.0, 1일 4회 이상 시행 시 1.0을 나타내 칫솔질 횟수의 증가에 따라 치면세균막 지수가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송 등¹¹⁾의 연구에서도 칫솔질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치아우식증이 감소하는 반비례 관계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칫솔질 횟수와 치면세균막 지수와의 관련성을 교육을 통해 알리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계속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이들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 된다.

1회 칫솔질 시간은 치위생 전공자들에서 1-2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분, 4분 이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학생들은 1-2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분, 1분미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 칫솔질 시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사람에 따라서 칫솔질의 유형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칫솔질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

면세균막 제거 효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불소치약에 대한 연구에서 불소의 적용시간이 길수록 치아에 대한 침착효과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칫솔질 시간이 길수록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구강 내 적용하는 칫솔질 방법에서, 치위생 전공자들은 회전법이 58.6%로 가장 많았고, 일반 학생들은 회전법이 3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칫솔질 방법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우¹²는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는 칫솔 사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조⁸는 치면세균막 억제에 강조하고, 또한 만족스러운 칫솔질 효과를 얻으려면 환자에게 칫솔질만 잘 하라고 강조해서는 불가능하고 개개환자에게 적합한 예방법을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조사 결과 현재 대학생 중 다수가 회전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종마법과 횡마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회전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에게 각 칫솔질법의 장단점과 본인에게 적절한 칫솔질 방법을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치위생 전공자들이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28.6%로 나타났고, 일반 학생들은 14.6%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은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서 등¹³은 일반 아동은 13.4%, 성인은 40.5%가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는데, 이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다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 등¹³의 연구에서는 이썬시개와 양치용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음을 보고한 바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종류와 명칭을 명확하게 명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치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보조구강위생용품의 종류별 사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치위생 전공자가 일반 학생보다는 더 많은 사용 실태를 보여 주고 있으나 두 집단 모두 그 사용율은 적은 것으로 이들에게 보조구강위생용품에 따른 사용방법, 장단점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본인의 구강내 환경에 따라 적절한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알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켈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 모두에서 경우에 따라 해야한다가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스켈링 경험에서는 치위생 전공자들은 경험이 있다가 가장 많았고, 일반 학생들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스켈링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치석은 제거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 치은 부종과 치조골

소실에 따른 치아동요가 수반된다. 칫솔질과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이용하여 구강관리를 시행하여도 치석과 같이 견고하게 구강 내 부착된 물질들은 제거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적 처치인 스켈링이 필요하다. 이 등¹⁴은 과거 경험한 구강증상별 관리 방법에서 가장 많이 방치한 질환을 보았을 때 치아동요와 치석을 들었다. 이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스켈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나 좋지 않은 경험으로 인해 스켈링을 기피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환자가 갖는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위생 전공자들은 치면세마 수업 등을 통해 실제 환자를 접할 때 스켈링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두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환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들의 치아우식증 경험은 두 집단 모두 과거에 충치경험이 있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등⁷은 최근 구강진료기관을 이용한 목적으로 치아우식증 치료가 5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고 밝혀 본 연구를 뒷받침 해 주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치아우식증에 대한 예방법과 구강관리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치과방문경험은 치위생 전공자들에서 경험이 있다가 97.7%로 가장 많았고, 일반 학생들은 경험이 있다가 90.3%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치과방문 경험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 < 0.01$), 정기구강검사 여부에서는 치위생 전공자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0%로 나타났고, 일반 학생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1.2%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에 정기구강검사 여부에 있어서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주⁹의 연구에 의하면 구강진료기관에 내원한 이유로 구강병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경우가 71.7%로 가장 많았으며, 구강병 예방치치와 정기구강검진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는 12.1%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정기구강검사 여부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주⁹는 구강병 이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구강검사 경험이 적은 원인으로 예방에 대한 인식 부족과 질환이 심해질 때까지 비교적 동통이나 불편감이 없어서 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정기검진의 중요성과 예방치치의 필요성에 대한 더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구강보건교육 받은 경험에 대하여, 치위생 전공자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57.3%, 일반 학생들은 36.4%로 나타났으며,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 간에 구강보건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정¹⁵등은 계속구강관리를 받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경험을 살펴본 결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1.8%였다고 보고하였고, 또한 박¹⁶과 박과 임¹⁷은 연령과 성별 등 일반적인 특성과 상관없

이 건강관리에 있어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치위생 전공자들에게는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 영역 중 구강보건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일반 학생들에게는 대학생활 동안 보다 다양한 구강보건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구강보건교육 유경험자 중 구강보건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치위생 전공자들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가 46.0%, 일반 학생들은 25.3%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01$), 두 집단 모두에서 과반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주⁹⁾는 구강보건교육은 환자가 시간적, 환경적,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구강보건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대학생 시기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내용의 구성과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매체 개발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전반적인 구강건강관리 실태가 구강보건교육의 경험이 많은 치위생 전공자가 일반 학생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수업시간에 계속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받고 실시요령을 익히는 사람들에게서 직접적인 구강건강관리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 재학기간 동안 치위생 전공자들은 구강보건교육과 실습시간을 통해 받은 교육과 매체들을 통해 홍보하는 데도 노력하고 축제 등을 통한 개별 구강건강관리 요령을 알려주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 일반 대학생들에게 알림으로써 동기유발을 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에서는 교양시간 등을 이용한 일반 학생들의 지속적인 개별 구강건강관리 요령과 구강보건 교육 매체를 이용한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구강관리를 통한 본인의 구강건강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구강건강 포스터나 방송매체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구강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매체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면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구강건강까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위생 전공자들의 경우 향후 구강보건교육을 담당할 인력으로 제학 시 보다 다양한 구강건강 관리요령의 교육 방법과 매체 등을 개발하면서 얻은 매체를 이용한 교육방법 등을 훈련과 실습을 통하여 강화한다면 구강보건 교육자로서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들 간의 비교를 위해 표본을 추출하였으나 서울과 광주 광역시에 한정된 조사였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더불어 조사대상자의 구강검사가 병행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치위생 전

공자와 일반 학생들의 실제적인 구강건강실태를 보여줌으로써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환정도 등을 통한 구강보건교육의 강화부분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치위생 전공자와 일반 학생의 구강건강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과 광주 지역의 2개 대학을 대상으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배부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한 비교 분석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강건강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칫솔질 횟수에서는 치위생 전공자들은 3회가 가장 많았고, 일반 학생들은 2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칫솔질 시간은 치위생 전공자들이 1-2분, 3분, 4분 이상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 학생들은 1-2분, 3분, 1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p < 0.05$).
2. 스켈링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스켈링 경험은 치위생 전공자들의 경우 “경험이 있다”가 50.9%로 가장 많았고, 일반 학생들은 “경험이 없다”가 56.8%로 가장 많았다($p < 0.001$).
3. 구강보건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치위생 전공자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일반 학생들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p < 0.001$).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전반적인 구강건강관리 실태는 구강보건교육의 경험이 많은 치위생 전공자가 일반 학생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수업시간에 계속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받고 실시요령을 익히는 사람들에게서 직접적인 구강건강관리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일반학생들에게도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Kim JB, Choi YJ, Moon HS et al.: Public Oral Health. A revised edition, Seoul: Komoonsa, pp.12, 2000.
2. Lee JS, Yoon YM, Lee HS, Kim SN: Restricted activity with oral disease in a Korean university student. J Korean Acad Dent Health 25(3): 245-258, 2001.
3. Choi EM: A study on the college student's dental health knowledge and the usage of the oral hygiene devices. Dong-U College Jol 6: 377-391, 1994.
4. Ministry of Health: 2006 A survey of national oral health V. An abstract pp.59-99, 2006.
5. Kashi EP: Health status of adolescent school girls in a region of Alambagh, Lucknow. Indian J Med 25: 376-383, 1971.
6. Solberg W, Woo M, Houston J: Prevalence of mandibular dysfunction in young adults. J Am Dent Assoc 98: 25-34, 1979.
7. Lee JS, Lee HS: The oral health behavior and its related factor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Dent

- Health 28(3): 331-346, 2004.
8. Jo MS: Evaluation on the knowledge and control method of the oral health and accumulation of dental plaque in university students.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Jol 33: 969-981, 1992.
 9. Ju OJ: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estimation for oral health education of dental patients. J of Dent Hygiene Science 5(3): 119-124, 2005.
 10. Kim JG: Chemotherapy in periodontal disease. J Korean Dent Assoc 21(6): 445-448, 1983.
 11. Song KB, Choi YH, Hong SG, Kim JB: Dental caries prevalence in relation to socioeconomic factors and dental health behaviors among korean adults. J Korean Acad Dent Health 27(2): 319-328, 2003.
 12. U KD: A study on the scanning microscope of the effects of the toothbrushes type and abrasive on gingival epithelium and plaque bacteria. J Korean Acad Periodontol(abstract) 13(1): 61, 1983.
 13. Seo EJ, Shin SC, Seo HS, Kim EJ, Jang YS: A survey on koreans' behavior about the use of oral hygiene devices. J Korean Acad Dent Health 27(2): 177-193, 2003.
 14. Lee HN, Cho MJ: Dental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dental health belief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gwangju chunnam. J of Dent Hygiene Science 4(2): 75-80, 2004.
 15. Jung MH, Park MY: A study on the oral healthcare condition of adult in public health and their knowledge about oral health. J of Dent Hygiene Science 7(2): 73-79, 2007.
 16. Park MY: A study on the degree of the actual condition of management and knowledge of oral health by college students who major in public health or not. J of Korean Dentistry 58(1): 91-99, 2005.
 17. Park MY, Im MH: A study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degree of the actual condition of management of oral health and knowledge by college students who major in dental hygiene or public health. J of Korean Dentistry 58(6): 69-78, 2005.

(Received July 16, 2008; Accepted September 17, 2008)

